흑암의 저주가 편하고 익숙한 자들

(마27:45-50)

45. ○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46.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흑암의 저주가 편하고 익숙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어렸을 때 나눴던 대화중에 50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때마다 화두처럼 기억에 되살아나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하급학년이었을 때쯤인 듯합니다, 1960년대 말이나 되었을 때 집안에 식모누나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살던 명옥이라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누나와 강원도에서 살던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가로등은 물론 신작로도 없는 산속의 두메산골이었는데 밤에는 전기도 없고 달빛과 반딧불이 불빛만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누나의 말이 몇 채 안 되는 집이 모여 사는 마을에 야생동물들이 끝없이 출몰한다는 것이에요, 60년대 말이지만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저의 어린 마음에 참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밤길을 갈 때 뭐가 나타나면 제일 무서우냐고 물었더니, 하여간 얘기 중에 그 누나가 직

접 보지는 못했지만 호랑이가 나타난 적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 대답은 당연히 야생동물 중 하다못해 살쾡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의 말은 뜻밖에도 밤에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한 그 누나의 말이 제 평생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중에 만나면 뭐가 제일 무서운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마다 떠오르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떠오르는 그 얘기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이 살아갈수록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사건이 진행되면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이 죽으실 때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 예수님이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마음속에 느끼시는 상실감의 결정입니다.
상실감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두려움이 같이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행복의 이유와 행복의 조건을 상실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상실감이 두려움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상실감의 절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이 눈에 띄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라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집채만 한 풍랑에 뒤덮일 때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상실할까봐 두려움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의 실권, 생사여탈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위협 앞에 섰을 때 주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매장당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무서워하는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우셨을 것은 마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늘 이 상실감 표현의 절정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두려우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 바로 6시부터 9시까지 뒤덮인 어두움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어둠.
중동 땅이 적도에 가까워요, 태양이 강렬합니다, 그 지역에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많이 쬐일 그 시간에 흑암이 덮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신 상태를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표현해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버리셨습니까?
어디로 버리셨기에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모르는 분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명옥이 누나에게 무엇이 제일 두렵냐고 했을 때 사람이 제일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며, 새카만 흑암의 상태로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계시되는 것입니까?
저주 속에 던져진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저주 속으로 버리십니다.
그러면 이 저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저주의 내용을 알면 우리는 의아해하게 되요, 명옥이 누나가 사람이 무섭다고 했을 때 어린 제 마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 속에 버려졌다고 했을 때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운 것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알려면, 3층 구조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떠올립니다.

눈앞에 그려봅니다.
제일 위에 천국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중이 있고, 맨 아래에 땅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감관으로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머릿속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공중이라는 차원이 있어서, 하늘과 공중과 이 세상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겹쳐있을 수가 있습니다, 겹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루어져 있어요, 몸과 마음과 하늘나라의 세 차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은 공복상태로 지으십니다.
공복상태로 지으셨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위로 하늘나라로 향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의 사귐을 통하여 공복의 마음이 배불러져야 되는 것이 창조의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으로 공복의 마음이 배불린 상태에서 이제는 이 몸으로 접하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배불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배불러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상태, 갖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없기 때문에.
뜻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루고 싶은 뜻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진 마음, 그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상 없이 내 뜻과 섞이지 않고.

주님은 바로 그 창조의 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셔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인간이셨지만 공중에 있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배부름을 늘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소원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천국의 하나님아버지 보좌 앞에 늘 올라가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타락한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 마음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뒤늦게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 왜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까? 죄 없는 분이 저주를 받아야 우리의 저주가 대속될 수 있으니까 - 이 땅에 마음이 내려 보내졌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내려 보내져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 보내져서 살고 있다는 이 상태, 저주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공복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 자식이든 배우자든 아니면 존경하는 멘토든지 간에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 배가 부르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 배부르든지 권력을 잡아서 배가 부르든지 이 세상에서 내 공복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게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내 공복의 배를 채우기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 즉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해 '돈으로 내 공복의 마음이 배불렀으면 좋겠다', '일류대학을 들어가서 공복의 마음이 배불렀으면 좋겠다' '저 여인과 결혼해서 내 마음이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게 다 공복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 먹고 싶은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공복의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먹고 싶은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것이 없는 분을 이 땅으로 마음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마음이 내려와서 이 땅으로 매어버리는 것이, 이 땅에 버려버리는 것이 저주이니까.
우리는 의아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두려움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이 두렵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며 사는 것, 멋진 애인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승진하고 싶어 하는 것,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왜 두려워하는 저주의 삶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경기를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는 그 상태가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해나가라!'

이게 주님은 기겁을 하며 경기를 일으키고 두려워하시는데 우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카만 흑암인데, 우린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 두려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겨우겨우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늘 엄마하고 싱갱이를 하지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아라'
그런데 한번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서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고 차고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문을 두드리며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 잠긴 문 바깥에서 아이가 경악하며 질러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의 마음속의 두려움이 내게 전달되면서 내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잘못 될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하니까.
매를 들고 옆에서 때릴 때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차고에 가두어버릴 때 아이가 기절을 할 정도로 발악을 하며 무서워하는데 그 아이의 무서움이 내 마음에 무서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돼서 정신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공복을 채우기 위하여 좋다고 여겨서 먹고 싶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이 세상에 버려지셨습니다.
아버지와 격리된 상태를 이렇게 두려워하신 것이었는데, 아버지와 격리된 그 상태를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드리워진 대낮의 흑암, 이 저주의 흑암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지탄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모든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뭐가 두려운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업 잘해보겠다고 세상에 골몰하고 있는 것, 세상의

자녀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것, 결혼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것, 정치 잘해보겠다고 골몰하는 것, 나라 사랑하겠다고 골몰하는 것, 이 세상의 일에 골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무서워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복음을 제로원의 원리로 깨닫고 전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마음이 빠져 들어가고 묶여 들어갈 때,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를 잘해보고 싶고 의혹이 생기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마음이 이 땅 위에 있는 일과 사람과 사건에 매여 들어갈 때에 이론적으로 저를 제지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내가 세상일에 대해서 마음이 제로가 돼야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걸 기억하자' 이론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 복음의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발동시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압니다.
제로원복음방송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일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문제에 빠져들어 가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고, 가끔 저도 좀 더 큰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아버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시선이 끝없이 붙잡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순간이 끊어져버리고 마음이 다른 것에 매여서 골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지긋지긋하게 싫은 일인가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제일 싫고 지긋지긋한 일이 이 세상의 일에 마음이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빠져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끌어 가십니다.
먹고 사는 일, 일의 성사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대로 그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센세이셔널 한 그런 규모나 성격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 눈에 안 띄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아무 눈에도 띠지 않게 평범하게 범속의 경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이끌어 가실 때도 있고, 물론 반대로 센세이셔널 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일을 가지고 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으면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십자가 위에 흑암이 드리워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흑암에 빠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신 일이 무엇인가?
공복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이 세상에 버려진 상태,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이 이 땅 위로 버려진 것,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내 배를 부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많은 좋다고 판단하는 것들, 주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삶을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사건의 본문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나를 드리우고 있는 어두움을 진정으로 십자가 붙잡으면서 천국의 빛을 통하여 깨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배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배불러지는 일, 이것 이외에 마음이 다른 것에 골몰하는 것,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